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당선·유력자 <14일 새벽 1시 현재>

다음 승부는 내년 4·3 재보선

한국당 의원 10명 재판중... 2심 재판중인 1~2명 예상

광주 구청장				
▲동구청장 임택 54·민 정당인 당선	▲서구청장 서대석 56·민 정당인 당선	▲남구청장 김병내 45·민 정당인 당선	▲북구청장 문인 59·민 정당인 당선	▲광산구청장 김삼호 52·민 정당인 당선
전남 시장·군수				
▲목포시장 박홍률 vs 김종식 경합	▲여수시장 권오봉 58·무 무직 유력	▲순천시장 허석 53·민 정치인 유력	▲나주시장 강인규 63·민 나주시장 유력	▲광양시장 정현복 68·무 광양시장 유력
▲담양군수 최형식 62·민 담양군수 당선	▲장성군수 유두석 68·무 장성군수 당선	▲곡성군수 유근기 55·민 곡성군수 당선	▲구례군수 김순호 55·민 정당인 당선	▲고흥군수 송귀근 61·평 정당인 당선
▲보성군수 김철우 53·민 정치인 당선	▲화순군수 구충곤 59·민 화순군수 당선	▲장흥군수 정종순 63·무 농업인 유력	▲강진군수 이승욱 61·민 정당인 당선	▲완도군수 신우철 65·민 완도군수 확실
▲해남군수 명현관 55·평 정당인 확실	▲진도군수 이동진 72·민 진도군수 유력	▲영암군수 전동평 57·민 영암군수 확실	▲무안군수 김산 60·민 자영업 확실	▲영광군수 김준성 66·민 정당인 당선
▲함평군수 이윤형 52·평 정당인 당선	▲신안군수 박우량 vs 고길호 경합	<범례> ▲이름 ▲나이·정당 ▲직업 정당명 약칭 : 민=더불어민주당, 평=민주평화당 무=무소속		

6·13 지방선거를 끝낸 여야는 전열을 가다듬어 내년 4월 3일 열린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또 한 번의 피할 수 없는 한 판 승부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더 이상 선거가 없는 만큼 그 다음 선거는 내년에 치러진다. 내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로, 한 차례 재보선이 실시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재판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내년 상반기 재보선 규모는 최소 1~2석, 최대 10석으로 '미니총선'을 방불케 했던 올해 재보선만큼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심에 계류 중인 자유한국당 소속 이군현(통영고성)·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 등 2명을 제외하면 모두 1심 재판 중이기 때문에 내년 재보선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재판 받는 의원은 총 10명으로 모두 한국당 소속이다. 2심 재판 중인 이군현·이완영 의원 외에도 원유철(경기 평택갑), 최경환(경북 경산),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홍일표(인천 남구갑), 황영철(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홍천), 이우현(경기 용인 갑), 이현재(경기 하남),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장영) 의원 등 8명이 1심 재판 중이다.

2심 재판 중인 이군현 의원의 경우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

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6일이다.

이완영 의원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들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지역 분포를 보면 경북 3곳, 경기 3곳, 경남 2곳, 인천·강원 각각 1곳씩이다.

만약 1·2심이 진행 중인 의원들 지역구 중 상당수에서 재보선이 열린다면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된 만큼 문재인 정권 집권 3년차 민심의 향배를 가르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5년 7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국회의원 재보선은 일년에 한 번씩만 치르게 돼 있다.

경우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 당선인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 무효형 판결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도 내년 4월 재보선에 포함될 수도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아 내년 4월 3일 재보선이 없을 경우에는 총선이 있는 2020년 4월 15일에 총선과 국회의원 재보선이 동시에 치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연합뉴스

사전투표 60대 이상 참여율 가장 높아

26.08%... 4년전 1위였던 29세 이하 19% 그쳐

지난 8·9일 실시된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에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에 전체 선거인(4천290만7천715명) 중 864만897명(20.14%)이 참여한 가운데 사전투표자 중 60대 이상이 26.08%(60대 15%·70세 이상 11.08%)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유권자가 20.91%로 그 뒤를 이었으며 29세 이하 19.28%, 40대(18.96%), 30대(14.76%) 등의 순이었다.

앞서 2014년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는 29세 이하 참여자가 24.6%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이상(21%)이 그 뒤를 차지했다. 지난해 대선 때도 29세 이하(23.9%)와 60대 이상(20.2%)이 각각 연령별 참여율 면에서 각각 1·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29세 이하보다 60대 이상이 더 많이 참여해 과거와 다른 패턴을 보였다.

한편 이번 사전투표에서 성별로는 남성(19.28%), 40대(18.96%), 30대(14.76%)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생명향진남
환경캠페인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우리 가족이 지구를 사랑하는 방법 쓰레기 분리배출

이것만 기억하세요!
비운다. 행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플라스틱류

페트병, 플라스틱 용기류

부착상표와 뚜껑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압착하여 배출

단, 알약포장재와 카세트테이프 등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비닐류

과자·라면봉지, 1회용 비닐 봉투 등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오염된 비닐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스티로폼

농수축산물 포장용기, 택배상자 등

음식물 등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상표, 테이프, 운송장 등 제거 후 배출

유리병류

음료수병, 맥주·소주병

담배꽂이와 같은 이물질을 넣지 말고 병뚜껑 제거 후 배출

그 외

거울, 깨진유리, 도자기류, 유리식기류는 종량제봉투나 전용마대에 배출